

강진군, 고유가 피해지원금 18일부터 2차 신청 접수

청계면, 고립가구 '이웃 안부 살핌'

강진군은 고유가와 고물가로 인한 주민 생활 부담 완화를 위해 추진 중인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을 마무리한 결과, 1차 지급 대상자 가운데 93.2%인 3,165명에게 지원금을 지급했다고 최근 밝혔다.

군은 오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2차 신청을 받아 약 2만4,000명을 대상으로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2차 지급은 소득 하위 70% 주민과 1차 기간 내 신청하지 못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추진된다.

2차 지급 대상은 가구 합산 2026년 3월 부과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장기요양보험료 제외)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로 정해지며, 고액자산가 제외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1차 지급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 중심으로 이뤄졌다면, 2차 지급은 소득 하위 70% 주민까지 지원 대상을

넓힌 것이 가장 큰 변화다. 지급 금액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60만 원,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50만 원이 1차 지급 시기와 동일하게 지급되며, 2차 일반 대상자인 소득 하위 70% 주민에게는 25만 원이 지급된다.

인구감소 특별지원지역인 강진군은 일반 대상자에게 25만 원을 지급하는 지역에 해당한다. 신청은 지역사랑상품권 앱 '착(chak)', 카드사 홈페이지 및 앱, 콜센터·ARS 등을 통한 온라인 신청과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을 통한 오프라인 신청으로 가능하다. 신청 초기 혼잡을 줄이기 위해 시행 첫 주인 18일부터 22일까지는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가 적용된다.

18일 월요일은 1·6, 19일 화요일은 2·7, 20일 수요일은 3·8, 21일 목요일은 4·9, 22일 금요일은 5·0에 해당하는 주민이 신청할 수 있다.

/전용재 기자



강진군청 전경 사진

/강진군 기획홍보실 제공

청계면(면장 감미간)은 최근 청·중장년층 고독·고립 우려가구를 위한 '이웃 안부 살핌' 발대식을 열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섰다.

이번 사업은 사회적 관계 단절과 고립 위험이 높은 청·중장년층 10가구를 대상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이 정기적으로 안부를 확인하고 생활 실태를 살피며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이날 발대식을 시작으로 사업은 오는 12월까지 월 2회 정기적으로 운영되며, 협의체 위원 2명과 대상자 1명을 연결해 가정을 직접 방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위원들은 이날 각 대상자 가정을 찾아 첫 만남과 안부 확인을 진행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방문을 통해 정서적 지지와 생활 안정을 도울 예정이다. 청계면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방문을 통해 고립가구의 정서적 안정과 생활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서용운 기자

강성희 후보 등록 완료...김시윤 사퇴·지지 선언



강성희 후보 후보등록 후 기념촬영 모습

/목포시청 제공

강성희 더불어민주당 목포시장 후보가 14일 목포시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 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했다. 같은 날 무소속 김시윤 후보가 전격 사퇴와 함께 강 후보 지지를 선언하면서 목포시장 재선거 판세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김시윤 후보는 기자회견을 통해 "분열이 아닌 책임 있는 리더십이 필요하다"며 사퇴와 지지 배경을 설명했고, 강 후보 캠프에 합류해 공동선거대책본부장을 맡아 선거 지

원에 나설 예정이다. 강 후보는 "무너진 시정을 정상화하고 목포의 미래를 다시 세우겠다"며 산업 구조 개편과 청년 일자리 창출, 해양·에너지 산업 육성 등을 통해 지역 경제 재도약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또한 행정 정상화와 시민 신뢰 회복을 핵심 과제로 제시하며 "정쟁이 아닌 성과로 목포를 변화시키겠다"고 강조했다.

/박성태 기자

함평군, 신규농업인 대상 '맞춤형 영농 현장 교육' 펼친다

전남 함평군이 영농 경험이 부족한 청년 신규 농업인과 귀농인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맞춤형 현장 교육에 나섰다.

함평군은 "이달부터 청년 신규 농업인과 귀농인을 대상으로 영농 기술 습득을 돕기 위해 마련한 '맞춤형 영농 현장 교육'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신규 농업인이 관내

선도 농가의 실제 재배 현장에서 기술과 노하우를 직접 배우며 안정적인 영농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5~10명 규모의 소규모 맞춤형 방식으로 진행되며, ▲고추 ▲무화과 ▲딸기 ▲콩 ▲토마토 등 5개 품목을 중심으로 품목별 3~5회 운영될 예정이다.

교육 내용으로는 ▲품종 분류 및 선택 방법 ▲재배 교육 및 실습 ▲

병해충 관리 ▲생육 관리 기술 등이 포함됐다. 신규 농업인이 영농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실용적인 내용으로 구성됐다.

군은 이번 교육이 선도 농가의 영농 경험과 기술을 신규 농업인에게 전수해 초기 영농 과정에서 겪는 시행착오를 줄이고, 안정적인 영농을 도울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문수 기자

영암군, 캄보디아 계절근로자 입국...모내기철 일손 투입

영암군에 캄보디아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대거 입국하며 본격적인 영농철 농촌 일손 지원에 나섰다. 영암군은 최근 캄보디아에서 선발된 외국인 계절근로자 30명이 1차로 입국해 지역 농가에 배치됐다고 밝혔다. 군은 오는 15일 52명, 21일 118명 등 총 200명의 근로자를 순차적으로 투입할 계획이다.

이번 입국자들은 지난해 영암군과 협약을 체결한 캄보디아 캄뽕짬주와 캄뽕스프주, 따깨우주 출신으로 비대면 화상회의(ZOOM)를 통해 선발됐다.

근로자들은 벼 모내기와 알타리 무·무화과 재배 농가 등 지역 120여 농가에서 영농 작업을 지원하게 된다. 군은 본격적인 모내기철을 맞

아 농촌 인력난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투입이 농가 경영 부담 완화와 안정적인 영농 활동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미아 영암군 농업정책과장은 "해외 지방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안정적인 농업 인력 공급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문수 기자

신안군, 농식품부 농어촌 기본소득 시행 지침 준수

신안군은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이하'기본소득 사업') 지침에 따라 신안군 자체 지침도 변경한다고 밝혔다.

먼저, 신규 거주 주민(2025년 10월 20일 이후 전입)은 연령에 따라 지급 유예기간을 각각 3·6·12개월로 차등 적용하던 자체 지침을 변경하여 지급 유예기간은 일괄 3개월로 단축하고, 유예기간이 지나면 유예기간 동안 받지 못한 기본소득을 소급 지급한다.

이에 따라 올해 1월 기본소득을 신청한 신규 거주 주민에게는 5월 6일 기본소득 2개월분을 소급 지급했다. 자세한 사항은 신안군청 누리집(홈페이지) 공고를 확인하거나 군청 기본소득팀(240-6720~4, 8955) 또는 해당 읍·면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

/박성태 기자

가고싶은 영암우시티 장성호 수변길

영암우시티

장성군

영암우시티

영암우출렁다리

수변 데크길(왼쪽)

황금빛출렁다리

수변 데크길(오른쪽)